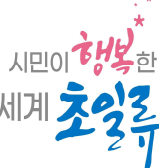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 <b>세계초일류도시 인천</b>	
<b>배포일자</b>		2023년 7월 14일(금) 총 2매			
<b>담당 부서</b>	<b>도시균형정책과</b>	<b>담당자</b>	• 도시균형정책담당 김종진 ☎440-4501 • 담당자 이건설 ☎440-4503		
<b>사진(이미지)</b>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b>참고자료</b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<b>보 도 시 점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원도심 부흥 이끌 역세권 활성화 방안 찾는다

- 13일, ‘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’ 보고회 개최 -
- 역세권 64개소, 45.43km<sup>2</sup> 지역 조사 후 성장 잠재력 높은 역세권 발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인 ‘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’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착수한 ‘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’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인천 원도심은 경인선, 인천도시철도 1호선 등 여러 철도 노선이 있어 잠재력이 높은 곳이지만,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쇠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시는 원도심 균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한다.

시는 원도심 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역세권 발굴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역세권 64개소, 45.43km<sup>2</sup>의 지역을 기초 조사해 30만m<sup>2</sup> 내외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촉매가 될 지역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.

이번 용역에서는 원도심 역세권의 현황조사 및 분석, 계획의 비전·

목표 및 과제 도출, 활성화 구역 제시, 활성화 구역 특성에 맞는 거점 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제시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으로, 2024년 6월 준공이 목표다.

이날 보고회에는 시 도시균형국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, 인천연구원 및 과업 수행기관인 (주)오씨에스 도시건축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해 쇠퇴가 가속되는 인천 원도심의 ‘균형’과 ‘부흥’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“인천 역세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디벨로퍼 등 전문가의 다양한 시각으로 혁신적인 계획을 도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” 했다.